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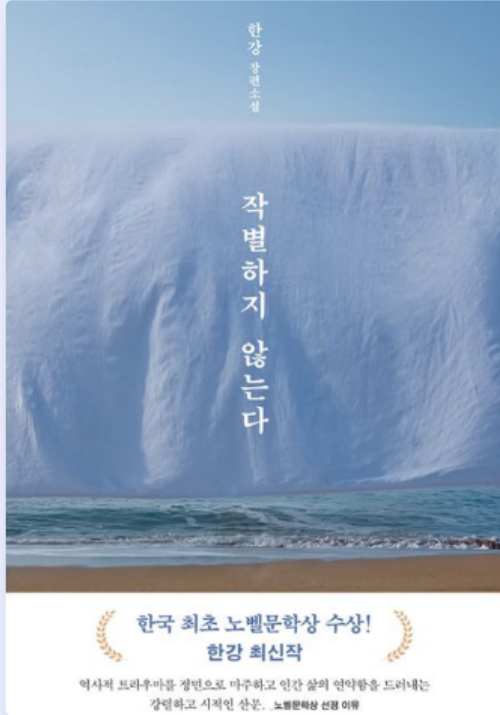
『작별하지 않는다』 리딩가이드



- 한강 지음
- 한국소설

생각심원
7월12

『작별하지 않는다』 리딩가이드



저자소개

한강

1970년 겨울 광주에서 태어났다. 1993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상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 메디치 외국문학상 등 국내외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목차

- 1부 새
- 2부 밤
- 3부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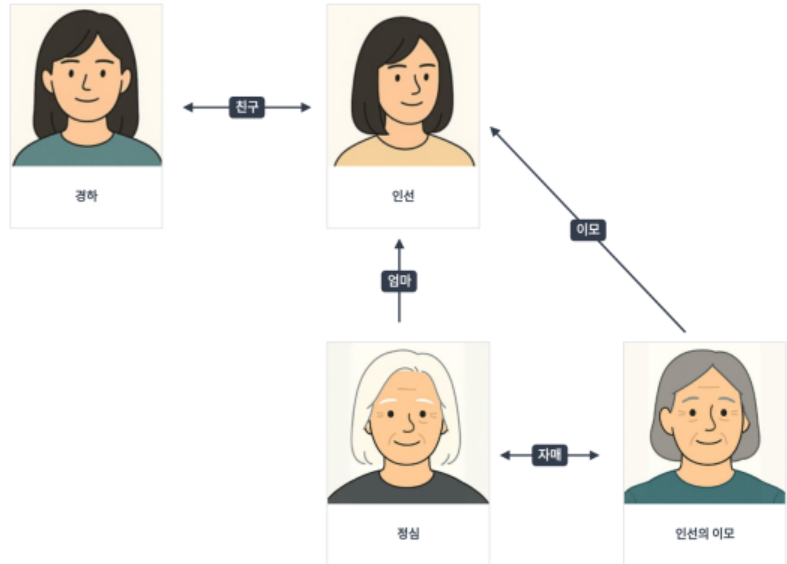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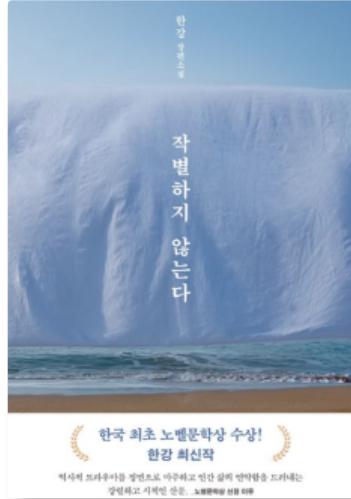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떤 책일까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눈’이라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경하는 꿈속에서 검은 통나무로 가득한 별판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학살과 연결된 악몽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옛 친구 인선과 함께 그 기억을 영상으로 남기려 했지만 삶의 고난 속에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인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하는 다시 제주로 향하게 되고, 폭설 속 외딴집에서 인선의 어머니 정심이 감내해 온 과거의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와, 그 기억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고통과 연대, 그리고 ‘작별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장인물 소개



경하

소설가. 대학 졸업 후 잡지사에서 편집기와 사진작가로 만난 인선과 친구가 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책을 쓴 후, 친구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로 가게 된다.



인선

경하의 친구로 제주에 살며 목공 일을 한다. 제주 4·3 사건의 유가족으로, 어머니 정심의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경하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심

인선의 어머니로, 제주 4·3 사건 당시 가족을 잃고 평생 그 기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 생존자이다. 그녀의 삶과 마음이 소설의 진정한 중심이다.



인선의 이모

정심의 언니이자 제주 4·3 사건 생존자. 가족의 비극을 함께 겪으며, 동생 정심과 서로를 지탱하고 살아간다. 상처와 애도의 세월을 품은 채 조용히 삶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작별하지 않는다』 알아보기

1. 소설의 창작 과정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가 한강이 2014년 『소년이 온다』를 완성한 뒤 꾸었던 꿈에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검은 통나무들 사이를 걷다가 지평선인 줄 알았던 바다가 발아래에서 밀려오는 이미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으로 남을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의 꿈과 친구의 사고 경험, 제주에서의 영상 작업 등이 하나로 모여 장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 겨울, 한라산 근처에서 무릎까지 눈이 쌓인 길을 걸은 경험이 소설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창작 과정을 삶의 파편들이 어느 순간 만나 퍼즐처럼 맞춰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 소설의 주요 내용과 상징

소설은 경하가 친구 인선의 부탁을 받고 제주로 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선은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겪고 치료 중이며, 경하는 그녀가 맡긴 새를 찾아 눈보라 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의 눈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생과 사,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흐리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정심은 작가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밝힌 인물로, 정심과의 만남은 작품 전체의 정서적 핵심입니다. 소설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동백꽃과 눈, 전류의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작가의 후기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면서 “깨졌다고 할까요”라고 표현할 만큼 내면의 연약한 부분이 무너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깨어진 상태에서 시작한 이 소설은, 주인공 정심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고심하고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이후 계속되던 불면과 편두통은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점차 나아졌으며,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품을 완성하고 원고를 넘긴 시점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리딩가이드

[별점 이야기] 제주 4.3 사건을 한강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별하지 않는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별 점	☆☆☆☆☆ / 5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장도 나눠 주세요.

1. [단어] 본문에서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터넷에 '작별하지 않는다 단어집' 같은 자료가 공유될 만큼 독자들에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독서 중에 어렵거나 인상 깊었던 단어나 문장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까?

*소슬하다: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결절하다: 서로 사이가 떨어져서 연락이 끊어지다.
*초로: 노년에 접어드는 남자
*무람하다: 부끄러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있다.
*무연하다: 크게 낙심하여 허탈해하거나 멍하다.
*박명: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얼마 동안 주의가 희미하게 밝은 상태
*혼곤하다: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프다.
*음음하다: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흐리고 어둡다.
*체머리: 머리가 저절로 계속하여 흔들리는 현상

2. [위로] 경하는 인선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인선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혼돈과 희미한 것, 불분명한 것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p.44)

- 선택 1**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 선택 2**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 마음이 조금 허전하다.
- 선택 3** 사람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견디는 편이다.

3. [부탁] 인선은 제주 집에 남은 새를 돌봐달라고 경하에게 부탁드립니다. 경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부탁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선과 같은 친구가 부탁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주 집에 가줘, 라고 인선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

언제?

내가 묻자 인선은 대답했다.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로 최단시간에 달려가,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제주까지 날아간 다 해도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었다. 이상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선의 눈은 진지했다.

안 그러면 죽어.

누가?

새. (p.63-64)

선택 1 부탁을 들어준다. 친구의 간절한 말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선택 2 부탁을 거절한다. 내 한계를 넘는 부탁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4. [꿈의해석] 경하는 폭설을 뚫고 제주 작업실에 도착합니다. 잠든 뒤 눈을 뜨자 인선이 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인선이 죽었고 경하가 영혼을 만났다는 해석, 그 반대 해석, 모두 꿈이라는 해석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검고 둥근 그 형상이 흔들리며 길어졌다. 웅크렸던 몸이 펼쳐지는 거다. 무릎이 펴지며 두 발이 땅을 디뎠다. 팔에 파묻혔던 얼굴이 나를 향했다.

.....경하야.

(중략)

병실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다. 눈을 비비는 그녀의 오른손이 상처 없이 깨끗한 것을 나는 보았다.(p.187)

선택 1 인선이 죽었다. 상처 없는 손, 창백한 얼굴은 죽음을 암시한다.

선택 2 경하가 죽었다. 인선은 살아남은 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선택 3 아무도 안 죽었다. 이 장면은 경하의 내면이 만들어낸 꿈이다.

5. [제목]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붙였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은 물리적으로 이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의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그녀는 주전자에 생수를 부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제목을 묻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주전자와 머그잔 두 개의 양손에 들고 걸어오며 인선이 되뇌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말을 꺼내지도,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앉아 있었다. 주전자 밑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야 인선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작별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아직 주전자의 부리에서 김이 솟지 않았다. 비등점을 넘어서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흰 실타래 같은 증기가 주전자 부리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맞물렸던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반쯤 열렸다 닫히길 반복했다.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

(p.192)

6. [극한] 젓을 먹이는 생존 상황에서는 바닷고기를 먹었지만, 이후로는 단 한 점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존 경험이 식습관이나 윤리적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극한 상황에서 비롯된 신념이나 행동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바닷고기를 안 먹어요. 그 시국 때는 흉년에다가 젓먹이까지 팔려 있으니까, 내가 안 먹어 젓이 안 나오면 새끼가 죽을 형편이니 할 수 없이 닥치는 대로 먹었지요. 하지만 살 만해진 다음부터는 이날까지 한 점도 안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갇것들이 다 뜯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p.225)

7. [작별] 인선의 엄마는 얇은 쇠톱을 이부자리 밑에 깔고 잠드는 삶을 반복하며 평생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선은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인선의 엄마는 왜 제주 4.3, 오빠, 막내, 유족회와 이별하거나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부고를 제때 못 들어 문상을 못했다고 그 사람은 사과했어. 유족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멤버가 엄마였다고. 제주에선 아무도 생각 못했던 1960년에 이미 경산에 다녀온 사람이었다고 말했어. 진주 이송자 명부 사본을 대구형무소에 요청하자는 의견도 엄마가 낸 거였다고. 승합차를 대절해 다 같이 항의방문을 하고서야 명부가 나왔다고. 회원들이 찾는 가족들의 이름을 엄마가 일일이 찾아내 유해가 묻혀 있을 장소를 추정해줬다고 했어. 시내에서 모이면 집이 멀다며 늘 엄마가 가장 먼저 일어섰다고, 그때마다 두 손으로 회원들의 손을 잡았다고 했어. (p.289)

8. [구조] 인선은 “내가 어떻게 당신을 구해”라며 절망 속에서 엄마와 함께 무너져갑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삶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경계는 무너지고, 구조는커녕 함께 가라앉는 심정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근육이 거의 사라진 노인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셀 수 있었을까? 씨름 끝에 겨우 이부자리에 누이고 그 옆에 누워 눈을 붙이면, 그 사이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내가 잠들려는 순간마다 흔들어 깨웠어. 지척에서 입을 벌린 혼돈 때문에. 잠드는 순간 모든 연결고리를 다시 놓쳐버릴까 봐. 제발 삼십 분만이라도 이어 자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어. 도와주라. 잠들지 말아. 나 도와주라 인선아.

밤새 끓으며 타는 죽처럼 그렇게 우린 함께 튀고 흘러내렸어. 도와주라, 나 구해주렌. 속삭이다 잠든 얼굴에 손을 뻗었다가 물에 빠진 사람같이 젖은 땀이 만져지면 엄마를 등지고 누워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당신을 내가 구해. (중략)

이상하지. 엄마가 사라지면 마침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갈 다리가 끊어지고 없었어. 더 이상 내 방으로 기어오는 엄마가 없는데 잠을 잘 수 없었어. 더 이상 죽어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죽고 싶었어. (p.312 ~ p.314)

9. [기억] 섬광처럼 예리한 기억은 엄마를 찢기듯 열어놓고, 더 큰 혼란을 몰고 옵니다. 기억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엄마의 정신이 극도로 맑아지는 순간들이 섬광처럼 찾아왔어. 예리하게 벼린 칼 같은 기억들이 엄마를 습격하는 때가, 그럴 때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 메스에 몸 가운데가 벌어진 사람처럼. 피투성이 기억들이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것처럼. 그 섬광이 지나가는 즉시 더한 혼란이 찾아왔어. 나를 끌고 기어가 식탁 아래 숨곤 했는데, 그때 엄마 머릿속 지형도에서 안방은 어릴 적 살던 한지내 집이고 내 방은 외가, 부엌으로 기어가는 길은 숲이었던 것 같아. 식탁 아래에서 날 껴안고 있던 엄마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 놀라기도 했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를 지키려고 엄마는 턱을 떨었어. (p.314)

선택 1 기억은 붙잡아야 한다. 아프더라도 나를 이루는 근원이다.

선택 2 기억은 놓아야 한다. 지나간 고통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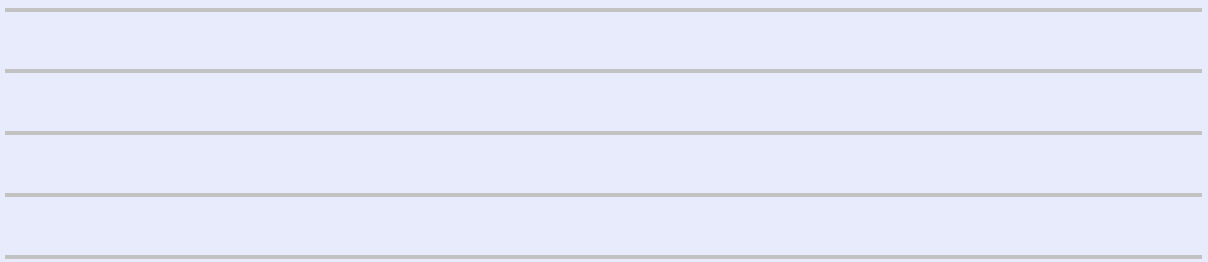
※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무엇입니까?

이 책에 새로운 정보가 있었나요?	
이 책이 재미있었나요?	
이 책이 내 삶에 변화를 줬나요?	

[질문 만들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떠오른 궁금한 점이나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질문을 적어보세요.



[생각 말하기] 이번 리딩가이드에서 나온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골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글쓰기] 책을 읽고 나눈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오늘 모임의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